

2000년대 한국사회와 국가주의 스포츠의 약화*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국문초록

근대 스포츠의 도입 이래 한국 사회는 늘 스포츠를 저항의 수단으로 간주해왔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 민족주의를 발전시켰다. 스포츠 민족주의는 특히 독재정권하에서 강화되었으며 일종의 국가주의로까지 발전하였다. 독재정권은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할 수단으로 스포츠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엘리트 스포츠의 육성에 집중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 민족주의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그 중에서도 하는 스포츠의 확산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사회에서 하는 스포츠의 확산을 가져 온 일차적 요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스포츠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스포츠의 개인화로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 민족주의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 주제어 ■ 국가주의 스포츠, 스포츠 민족주의, 스포츠의 개인화, 하는 스포츠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junechung@mail.knou.ac.kr

1 달라진 풍경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개최된 제32회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여 종합성적 16위를 기록하였다.¹⁾ 광복 이후 첫 금메달을 땀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한국이 불참했던 19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을 제외하고 한국이 올림픽에서 기록한 가장 낮은 순위였다. 즉 한국이 45년만에 올림픽에서 기록한 가장 저조한 성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처럼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국가대표팀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 못지 않게, 아니 관점에 따라서는 그들보다 더욱 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일부 선수들이 주목받았다는 점이다. 탁구의 신유빈이나 수영의 황선우, 육상 높이뛰기의 이상혁과 여자 배구 대표팀이 그들이다. 이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올림픽과 나아가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지 시민들에게서만 엿보인 것은 아니다. 실상은 스포츠를 대하는 선수들의 자세에서 먼저 변화가 감지되었다. 197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프로권투

1) 주지하듯이 여기서 16위라는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표하는 공식 순위가 아니라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매긴 순위이다. IOC는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내세우며 국가 간 순위를 매기지 않지만(이를 위해 개최지도 국가명이 아니라 도시명으로 표기한다), 올림픽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각 국가와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도 메달 색깔을 고려하지 않고 총메달 수를 따지는 미국식과 금메달에 우선권을 주는 우리나라식이 있는데 16위라는 순위는 우리나라식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위이다.

세계타이틀을 획득한 홍수환은 경기가 끝난 후 어머니와의 국제전화에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는 말로 기쁨을 표했고, 그에 대해 어머니는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라는 말로 화답한 적이 있다. 개인의 부를 추구하는 프로 스포츠에서의 승리조차 ‘국가와 민족의 영광’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²⁾ 따라서 당연히 그 시절 스포츠 선수들은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승리를 쟁취해야 했다. 세계 타이틀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하고 이 광경이 언론으로 중계되기도 했다.³⁾ 그의 승리는 단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가 지나며 이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승리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태도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해 스포츠를 즐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패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달라진 것에서 그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마라톤의 이봉주는 1위와 불과 3초 차이로 아깝게 은메달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한 표정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1위를 차지한 남아공의 조시아 투과니와 함께 트랙을 뚫으로써 오히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적이 있다. 그 전까지의 올림픽에서, 그리고 애틀란타 올림픽에서조차 패배한 우리 선수의 전형적인 모습은 울분을

2) 물론 뒤에서 지적되듯이 프로 스포츠 역시 초기에는 단지 상업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1976년부터 미국 프로야구에서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실시되는 등 프로 스포츠와 그것이 대표하는 집단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약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우리 스포츠는 이런 전반적 추세에 비해 볼 때 비교적 예외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3) 과거 우리 스포츠의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희준(2009)의 책에 실린 여러 사례를 참조하라.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거나 심지어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차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음에 만족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4년의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화 등이 패배했음에도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더니, 2021년 동경 올림픽에서는 높이뛰기의 우상혁과 수영의 황선우, 탁구의 신유빈 등 심지어 메달권에 들지 못했는데도 밝은 표정을 보여준 선수들까지 나타났다.⁴⁾ 그들의 공통점은 스포츠를 즐기고 올림픽에 참여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선수의 변화는 팬의 변화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사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는 약소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잠시 잊도록 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패배에 울분을 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하지만 이봉주 때의 당혹스러움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난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이제 패배한 선수의 선전에도 박수를 보내고 최선을 다한 결과를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2021년 동경 올림픽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보자면 분명한 ‘실패’를 했음에도 낙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우상혁에 대해 인터넷 언론 [데일리안]에서는

4) 사실 스포츠에서의 패배란 상황에 따라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다. 일대일로 승부를 겨루는 개인 종목에서는 패배가 상대적으로 명확할 수 있지만 이를테면 여러 라운드의 결과를 합한 종합 점수로 승부를 가르는 피겨 스케이팅이나 일대일이 아니라 8명이 한꺼번에 최종전을 치러 순위를 가르는 육상과 수영 등에서 패배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모호함을 모두 무시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모두 패배로 치부했던 편이다.

“올림픽 정신’ 그 자체였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⁵⁾ 국가와 민족이 아니라 올림픽 정신을 얘기할 만큼 우리 사회의 언론,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다.⁶⁾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를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 개인화의 진전과 국가주의 스포츠(sports nationalism)의 쇠퇴 또는 약화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⁷⁾

2 국가주의 스포츠의 발전과 스포츠의 개인화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스포츠가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포츠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스포츠가 기본적으로 근대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근대적 현상들이 그렇듯이 스포츠의 기원도 우리가 지금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것의 연원을 추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 유사성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그리 쉽지 않다. 이를테면 흔히 정의하듯이 스포츠를 규칙에 입각한 경쟁적 신체활동으로 정의

5) 김윤일, ‘올림픽 정신’ 그 자체였던 높이뛰기 이상혁, 데일리안 2021년 8월 2일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7843/>.

6) 데일리안은 올림픽을 결산하는 특집 기사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과 다이빙의 우하람, 육상의 이상혁, 체조 마루운동 류성현, 여자 역도 이선미등을 거론하며 “자랑스러운 4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태훈, 노메달? 자랑스러운 4위들에 쏟아진 갈채, 데일리안 2021년 8월 9일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9923/>.

7)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주의(statism)는 국가를 가장 우월한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이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민족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서구 근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민족을 중심 단위로 삼았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국가주의 스포츠의 기반을 마련했던 박정희 정권이 부족한 정통성의 보충을 위해 국가주의를 민족주의로 포장하여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 결과 적어도 박정희 정권 이후 스포츠에서의 민족주의는 국가주의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할 때 그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이나 경쟁, 신체활동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스포츠의 기원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육식동물이 성장 과정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놀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활동으로 사냥 기술을 습득하는 것처럼 인간으로의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동물과 유사하게 생존을 위한 활동을 습득하는 과정을 스포츠의 기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⁸⁾

이처럼 정확한 기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스포츠가 초기부터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 이 때 집단주의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가지는 좀 더 원초적인 것으로 스포츠가 집단의 생존과 연관된 것이었다는 의미이다. 게르하르트 루카스가 최초의 스포츠는 창던기였다고 얘기하였을 때의 의미가 그와 연관된다(캐시모어, 2001:89). 즉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하던 사냥과 연관된 활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스포츠는 집단의 표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를테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투쟁에서와 같이 스포츠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대표하여 타 집단의 대표와 경쟁하는 수단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후자의 스포츠도 생존의 측면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는

8) 이런 단점은 스포츠 뿐 아니라 근대에 정립된 다수의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18세기 이후 정립된 예술의 기원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가 예가 될 수 있다. 바퇴가 예술이란 미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지만 이 목적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예술의 기원을 현재 우리가 예술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것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를 예술의 기원으로 설정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술의 기원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것이기는 하지만, 전자가 죽느냐 사느냐와 연관된 순수하게 물리적인 의미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물리적 생존을 포함하여 승자의 권리와 노예와 같은 패자의 위치를 감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⁹⁾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의 집단주의적 성격은 20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 과정에서 스포츠는 군사훈련의 일환이기도 했고 종교행사의 부속물이기도 했으며 공동체 의식을 북돋기 위한 수단 하나이기도 했다.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의 시기에 스포츠는 공동체 의식을 북돋는 수단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화약과 같은 군사 무기의 발달로 개인의 신체능력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군사훈련으로서 스포츠의 의미가 축소된 것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세속화와 함께 종교의 사회적 권위가 약화되어 종교행사의 일환으로서 스포츠의 역할이 줄어든 것과 연결된 것이기도 했다.¹⁰⁾

반면 그 과정에서 부각된 것은 스포츠와 민족주의의 결합이었다. 이는 이 시기가 근대 민족 국가의 정립 시기였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민족 국가는 내부의 구성원을 규합할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스포츠를 하나의 도구로 채택했다.¹¹⁾ 이

9) 이 과정에서 집단주의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사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흔히 얘기되는 로마 황제 네로의 '빵과 서커스'의 정책,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3s 정책'이 그와 연관되어 있다.

10) 베버가 스포츠를 직접 언급한 사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베버의 세속화 논의를 스포츠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Guttman(1978)과 Overman(2000) 등을 참조하라. 특히 Guttman은 현대 스포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세속화를 꼽고 있다. 한편 이런 변화의 결과 쿠베르탱의 생각처럼 스포츠는 현대적 형태의 무훈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종엽(1998)을 참조하라.

11) 물론 이를 반드시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1964년 동경

는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 즉 경쟁적 활동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스포츠는 경쟁 과정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서로의 편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부 구성원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속성이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된 것이다.

실상 이런 속성은 일견 집단주의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프로 스포츠의 기반이기도 하다. 프로 스포츠는 상업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고 그 결과 소비자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출발선상에서는 원래 집단에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집단은 공장 과 지역, 종교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다(정준영, 2002; 2003). 프로 스포츠와 집단 사이의 연관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대중매체의 전국화와 함께 프로 스포츠의 전국화가 이루어진 것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처럼 초기에 비해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프로 스포츠는 집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프로 스포츠의 팬이 주로 지역과 연결되어 형성되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20세기 초반 이래 여러 나라에서 스포츠는 국가주의와 결합하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주의의 대표적 형태를 보여주었던 나치 독일이 그 원형을 보여 주었다면 그 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

올림픽, 1988년 서울 올림픽, 2008년 북경 올림픽과 같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와 연관되어 스포츠를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많은 경우 스포츠는 의도적으로 활용되었다기 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올림픽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박해남(2018)을 참조하라.

사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포츠는 민족의 표상을 넘어 국가와 민족, 그리고 특정 정치권력을 동일시하는 틀 속에서 그 정치권력에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이 틀 속에서 삼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스포츠가 어느 쪽에 더 봉사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다소의 차이가 구분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하에서는 국가와 민족, 독재정권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었고 스포츠도 그에 봉사하는 것이었다면 민주정권하에서는 삼자 사이의 관계가 좀 더 느슨해지면서 상황에 따라 스포츠가 삼자 중 어느 한쪽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스포츠는 집단주의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of sports)란 특정 개인의 스포츠와 연관된 활동이 그가 결부되어 있는 집단의 생존이나 그 집단의 표상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고 단지 개인의 만족을 지향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물론 스포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듯이 개인화의 정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가능하다. 먼저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는 이른바 전문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스포츠 활동 사이의 차이가 있다. 전문 운동선수가 국가주의에 좀 더 밀착되어 있을 때에도 일반인의 사적인 스포츠 활동은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반인의 사적인 활동이 모두 집단주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집단체조와 같은 집체활동처럼 개인의 활동이지만 집단주의와 나아가 국가주의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활동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일종의 유행과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주의와 연관된 것인가 아니면 개인화와 연관된 것인가의 질문도 가능하다. 세대에 대한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이런 식의 정체성 표출은 수동적인 순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능동적 표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집단주의적 속성에 좀 더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화의 발전된 형태로도 생각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사례를 개인화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로 파악할 것이다.

3 하는 스포츠의 발전과 개인화의 진전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가 좀 더 일찍 발전했던 서구사회에서 스포츠의 개인화가 본격적으로 진척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였다. 여기에는 1972년의 이른바 핑퐁외교 이후 냉전체제가 약화되면서 민족 또는 국가 사이의 경쟁수단으로서 스포츠의 의미가 약화되고, 비만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일종의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된 비만 문제의 효과적 해결 수단으로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 사회에서 이른바 생활체육(sports for all)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런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¹²⁾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의 개인화는 서구 사회에 비해

12) 더불어 크리스토퍼 라쉬(1989)의 지적처럼 이른바 혁명의 시대였던 1960년대가 지나고 사회 개혁의 열망이 약화되면서 개인 구제의 욕망이 증폭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라쉬와 정준영(2003) 등을 참조하라.

상당히 뒤늦게 시작된 편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가 남북의 대치라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어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냉전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냉전체제에서 서서히 탈피한 것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1980년대말 이후의 일이며, 북핵문제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문제, 정전협정 등이 주기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듯이 냉전체제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뒤늦은 산업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비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¹³⁾ 게다가 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으로 어느 정도의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큰 이야기’가 여전히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사회였다.¹⁴⁾

결국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의 개인화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13) 2005년에 보건복지부는 비만 인구의 폭발을 우려하며 ‘바른 식생활’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는데 당시의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비만 인구는 1995년의 11.7%에서 1998년의 28.1%를 거쳐 2001년에는 2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남성의 비만 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에 각각 18.0%에서 25.1%, 32.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제 비만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비만을 통제할 여러 수단이 강구되었는데 식생활의 개선과 함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각된 것이 운동이었다. 실제로 그 후 사회적 차원에서 운동의 효과를 강조할 때 동원되었던 자료 중 하나도 운동이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의료비에 들어갈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4) 여기에 덧붙여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있다. 1980년대까지(그리고 어느 정도는 현재까지도) 지속되었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혁 요구가 민주화 투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1980년대의 ‘큰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에서 이른바 ‘넥타이 부대’의 참여가 큰 이슈가 되었듯이 그 이전까지의 민주화 투쟁은 대부분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에 참여한 직장인들 역시 대학생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투쟁이 단지 지식인 엘리트의 것에 머물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노동 계급의 노동 조건 개선 운동과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큰 이야기’는 단지 지식인에만 머물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구성원들의 호응을 받았던 의제였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살펴보아야 할 요소는 하는 스포츠(participatory sports)의 발전이다. 1990년대초까지의 우리 사회에서는 관람 스포츠(spectator sports)가 지배하는 가운데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성인들 가운데에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운동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지닌 사람들만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하는 스포츠의 대표적 종목으로 테니스나 골프 같은 중산층 종목이 주로 꼽혔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을 제외한다면 당시까지는 스포츠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보디빌딩 같은 근력 운동을 하는 소수의 남성들이나, 1974년 서울 YMCA에서 에어로빅 워크샵을 개최하며 소개된 에어로빅을 즐겼던 일부의 여성들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이 지나며 이런 상황은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다.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생활체육 참여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먼저 정부 체육 정책의 변화가 있다.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을 유치하여 1980년대 내내 이 두 행사의 준비를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몰아갔던 정부는 올림픽이 끝나고 1989년이 되면서 생활체육의 진흥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1989년 11월에 일명 호돌이 계획이라고 불리는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든 뒤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¹⁵⁾

이런 정부 정책의 변화에는 1970년대 이후 냉전체제가 약화되고 과거 우리 스포츠의 주 경쟁 상대였던 북한이 우리와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¹⁶⁾ 또 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 이후 비록 한계는 있지만 민주화가 성취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자리잡힌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직선제 하에서는 아무래도 시민의 일상적 욕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두 차례의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스포츠 시설이 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듯이 올림픽과 같은 거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고 이렇게 건립된 시설은 스포츠 이벤트의 종료 이후 적절한 사용처가 없어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1988년 올림픽 이후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위해 건립된 시설들이 일반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 활용될 여지가

15) 국민생활체육회(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는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및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의 창달 그리고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던 체육단체이다. 이 단체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전국민의 생활체육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1989년 11월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호돌이 계획)을 수립한 후, 이 계획에 따라 1990년 11월 30일까지 15개 시도에 협의회를 결성한 뒤 1991년 1월에 이르러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창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1년 2월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1991년 7월에는 재단법인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와 통합하였다. 2009년 6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6년 3월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하여 통합대한체육회가 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6304>, 2021년 8월 7일 확인)

16) 주지하듯이 냉전체제의 약화에는 1972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진 이른바 핑퐁외교와 그에 뒤이은 국교수립,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의 약화 및 붕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많았던 편이다. 오히려 이들 시설 덕분에 운동을 할 곳이 없어 제대로 스포츠를 즐기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다.¹⁷⁾

세 번째로 1991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에서부터 1995년 자치단체장까지 지역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여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유권자의 일상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듯이 대통령에 비해 훨씬 더 작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밀착형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닐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따라서 시군구 체육센터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주요 치적이 될 수 있는 많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한강시민공원을 모방하여 전국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수변공원과 그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지방자치제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다.

네 번째로 수요의 측면에서 보자면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산층 인구가 있었다. 이들은 경제호황에 힘입어 늘어난 수입과 비록 세계적 수준에서 보자면 여전히 긴 시간이지만 상대적으로 줄어든 노동시간에 힘입어

17) 서울 올림픽을 위한 애초의 시설 계획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새로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기장 43개, 연습장 69개 등 모두 112개를 사용하고 새로 체조, 승마, 사이클, 오토, 조정 경기장 등 5개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것이 1983년에 전체 시설 113개로 수정되었으며, 1986년 대회 이후 서울올림픽 전 경기장 및 관련 시설은 경기장 34개, 연습장 72개, 관련 시설 70개, 문화 행사장 88개 등 264개로 최종 결정되었다(이하래, 2006: 650). 1986년의 아시안 게임과 1988년의 올림픽의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스포츠 시설과 대회 이후 그것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하래를 참조하라.

여가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¹⁸⁾ 1990년대에 인기를 모았던 볼링과 스키의 주요 참여자는 바로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겨냥해 헬스클럽 또는 피트니스 센터로 불리는 민간 스포츠 시설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들 시설의 증가는 다시 더 많은 스포츠 활동 참여자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도 있다. 한편으로 비록 불완전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풍요도 어느 정도 달성되면서 삶을 즐기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의 우리 사회를 설명할 때 흔히 소비사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¹⁹⁾ 경제적 풍요를 등에 업고 정치나 경제와 같은 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주말의 가족 외식과 여행 등이 일종의

18)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한 법이 최초로 마련된 것은 1953년이었다. 이 때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노동시간 8시간과 일주일 노동시간 48시간 등 표준 노동일과 표준 노동주가 처음으로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저 법적 규정이었을 뿐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운수사업 종사자의 하루 18시간 노동 등 10시간 이상의 노동이 강제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은 서구 국가들의 약 40시간에 비해 약 15시간이 더 길어 주당 55시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1970년에 주당 51.6시간, 1975년에도 주당 50.0시간으로 여전히 긴 편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89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이도록 규정한 덕분이다. 또 2003년에 이를 다시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1988년의 2,908시간에서 2004년에는 2,404시간으로, 2019년에는 1,96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물론 이처럼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은 OECD 평균인 1천726시간보다 연간 241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2천137시간을 일하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시간의 감소가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그 중에서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19) 1990년대 이후 소비사회의 도래와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연구가 제출된 바 있어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김창남(2021)과 주은우(1994; 2010) 등을 참조하라.

필수재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그리고 그 여가활동 중 하나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역시 늘어났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 참여 인구가 늘어나면서 스포츠 활동 참여는 일종의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를 낳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포츠가 경험재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스포츠 활동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려면 일정한 기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런 기량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운동신경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스포츠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아니며 어느 정도 기량이 쌓인 이후에야 비로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지 못하는 데에는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할 기회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개인의 만족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참여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최소한의 기량을 쌓을 기회 역시 마련되었다. 또 이들이 더 많은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갖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는 이처럼 눈덩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는 2000년대 이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폭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

여섯 번째로 위의 요소와 연관되어 새로운 세대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신세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졌던 시대이다. 캐나다의 작가 더글러스 쿠프랜드가 196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신세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X세대라는 용어가 널리 회자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신 인류, 우리나라에서는 오렌지족 등의 용어가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대의 행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²⁰⁾ X세대의 원래 의미는 좀 더 암울한 것이었지만 신인류나 오렌지족은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하는 소비지향적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세대는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되었다. 1990년대는 이 새로운 세대의 생활양식이 일종의 트렌드로 받아들여졌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1990년대는 왜 젊은 세대의 생활양식에 주목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 시기가 정보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히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98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며 속칭 삐삐(무선호출기, radio pager)와 휴대전화 등 새로운 기기들이 속속 출현했고 인터넷이 급속하게 일상 속에 침투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미처 그 기기에 익숙해질 여유도 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대에 따른 적응력의 차이가 두드러졌고

20) X세대란 캐나다의 작가 더글러스 쿠프랜드가 196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신세대를 가리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X세대는 부모가 이룩해놓은 복지 상태에 이르는 것을 포기한 첫 세대이다. 1980년대에 몰아닥친 불경기가 그들의 미래를 박탈했고, 그런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한 잊힌 세대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호화로운 것을 거부하고 최소한의 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자 하며, 사회와 기성세대에게 도덕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들은 무조건 현실에 반항하는 반항파들이 아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현실과 싸워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현실파들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적응하되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단지 모든 것을 편리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려 든다. 그런 성향이 그들의 삶에도 반영되어 어떤 일에서든지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바로 X세대이다. (출처: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15XX34400661>, 2021년 8월 22일 확인)

기성세대에 비해 새로운 기기에 좀 더 빨리 적응했던 신세대가 일종의 도덕적 우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게다가 사회 전반적으로도 정보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을 강조하는 정보사회론이 널리 확산되면서 정보사회의 주역으로 생각되었던 젊은 세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부수적 효과로 젊은 세대의 생활양식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기성세대가 오히려 젊은 세대를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²¹⁾ 일정 정도 연령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듯이 당시 새로 나타난 노래방에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대중음악을 기성세대가 열심히 부르며 배웠던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젊은 세대가 좀 더 적극적이었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세대를 넘어 일종의 사회적 트렌드로 발전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의 변화가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 활동 참여를 북돋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났다. 그 중 하나는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비만 인구의 증가이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배가 나오고 뚱뚱한 모습이었다. 전반적으로 못살던 시대이다 보니 비만이 오히려 어느 정도 부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만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뀌기 시작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제 비만이 부의 상징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바뀐 것이다.

21) 이에 대해서는 정준영(2020)을 참조하라.

건강의 측면에서 비만이 논의된 것과 함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새로운 경향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마음이 고운’ 사람이 아니라 ‘얼굴만 예쁜’ 사람을 선호하는 외모지상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용어는 다소 다르지만 서구 사회에도 외모지상주의에 해당하는 표현이 존재하듯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은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²²⁾ 그 이유는 현대 사회가 서로의 내면을 잘 알 수 있을 만큼의 깊이있는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익명성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서로를 잘 알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외적인 이미지가 서로에 대한 일차적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경우 도시화의 진전과 특히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의 확산과 같은 요인이 익명성을 강화시켰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외적인 이미지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외모를 돋보이게 만들 산업 역시 발전하였다. 성형수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운동도 그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영역이었다. 많은 사람들

22) 우리 사회에서 흔히 외모지상주의라고 얘기하는 경향에 대해 서구 사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루키즘(Lookism)을 들 수 있다. 루키즘은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풍토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2000년 <뉴욕 타임즈>에서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가 연재하던 칼럼 <온 랭귀지>를 통해 알려졌다. 새파이어는 해당 칼럼에서 루키즘을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로 설명했다. 개인의 외모가 인종이나 성(젠더), 종교 등과 같이 차별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루키즘이 강한 대표적인 나라로, 설문에 의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강한 루키즘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6% 정도가 '우리 인생에서 외모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중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25%였으며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답은 61%에 달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3%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1%에 불과했다.(출처: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d1325>, 2021년 8월 7일 확인 및 편집)

이 적어도 신년초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외모를 가꾸기 위해 운동에 몰두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도 일정 정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2000년대 이후 각광받은 웰빙 풍조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사전적 의미로 웰빙은 복지나 행복을 뜻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만족을 중심에 놓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2003년부터 웰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IMF 환란 이후 개인의 생존이 중요하게 된 상황과 함께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개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 등이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웰빙의 경향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은 신체활동에 대한 몰입이라는 면에서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의미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비만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처방으로서의 신체활동을 상정한다. 즉 이때의 신체활동은 쓴 약을 참고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선택하는 신체활동은 강제된 것이라기 보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가깝다. 즉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며 그 몰입의 대상이 스포츠 활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생활체육의 확산과 관련해서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후자의 관점이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 어떤 목표를 위해 강제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추

구하는 활동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하는 스포츠로서 생활체육이 폭발하고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이런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결국 이상의 여러 요인에 힘입어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하는 스포츠의 폭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스포츠 클럽 참여 인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다음 표에서 확인된다.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및 등록회원 증가 추이>

연도	클럽수(개)	등록회원수(명)
2001년	0	143
2002년	0	44,234
2003년	0	104,745
2004년	0	155,303
2005년	0	613,328
2006년	0	1,027,344
2007년	0	1,251,129
2008년	0	1,351,520
2009년	35	1,438,594
2010년	55,562	1,694,571
2011년	74,765	3,015,622
2012년	81,880	3,580,599
2013년	90,384	4,066,589
2014년	100,358	4,518,062
2015년	109,795	5,273,203
2016년	114,061	5,509,947
2017년	116,583	5,624,084

주: 매해 12월 31일 기준

자료: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면서 이 자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생활체육 동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보여 주기 위해 통계가 확인되는 2017년까지의 통계만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위의 표는 우리 사회에서 동호회에 가입할 만큼 스포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 또는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13%에 해당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는 스포츠 참여 인구가 폭발하는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만한 요소를 꼽아 볼 수 있다. 먼저 하는 스포츠의 확산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스포츠의 종목에 구애받지 않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의 우리 사회에서는 스포츠 시설과 장비의 부족 등으로 많은 구성원이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응으로 족구나 발야구, 피구, 팩차기 등 다양한 대체 스포츠가 나타났던 편이다. 흥미로운 것은 하는 스포츠의 확산과 함께 이들 대체 스포츠가 정식 스포츠 또는 정식 생활체육 종목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원수를 기준으로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생활 스포츠 클럽의 종목을 살펴보면 생활체조와 게이트볼, 국학기공, 등산, 합기도, 걷기, 풋살, 족구, 요가 등 광범위한 국제대회가 개최되어 정식 스포츠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상위 20위권 내에 포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위 20위까지의 종목 중 일종의 비공인 종목이 9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의 스포츠 활동 참여 증가를 들 수 있다. 사실 20세기 중반까지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활동이었다.²³⁾ 하지만 선구적인 여성들의 노력과 특히 196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금녀의 대회였던 보스톤 마라톤의 1967년 대회에

23) 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남성중심적 편견에 대해서는 정준영(2003)을 참조하라.

여성 최초로 참여했던 캐스린 스위치(Kathrine Virginia Switzer)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스포츠에서의 남녀간 장벽은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2021년 동경 올림픽에서는 IOC 스스로 양성 평등 올림픽을 지향해 여성의 참여 비율이 48.8%에 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IOC는 복싱, 카누 등에 있던 기존 남성 종목을 여성 종목으로 교체하고, 역도에선 남성 종목 일부를 없앴으며 남녀 혼성종목도 9개에서 18개로 늘렸다. 나아가 IOC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회 대회인 1900년 파리올림픽 때 여성 선수의 참가가 처음 허용되었지만 전체 참여자 중 겨우 2%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한 세기를 거치며 이제 완전히 동등한 참여를 내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전문체육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는 결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던 편이다. 하지만 소수의 선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스포츠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며 이런 상황은 급속히 바뀌고 있다. 2021년 동경올림픽 대표팀의 구성에서 한국 선수단은 232명 중 여성의 비율이 44.8%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더 낮았지만 생활체육에서는 다른 모습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8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서는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62.8%)이 처음으로 남성(61.6%)을 추월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는 스포츠의 폭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공인 종목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과거 스포츠 활동에

서 배제되었던 집단들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전통적으로 스포츠에 부여했던 의미도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은 스포츠 활동을 개인의 만족과 연결시키는 관점을 더욱 강화시켰다. 자연스럽게 스포츠 활동을 집단의 표상으로 여기는 관점은 약화되었으며 이처럼 스포츠의 개인화가 진척되면서 국가주의 스포츠가 설 자리는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다.

4 스포츠의 개인화와 국가주의 스포츠의 약화

구한말 서구 근대 스포츠의 도입 이래 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장악하고 있던 지배적 관념은 저항으로서의 스포츠와 그에 연결된 것으로 스포츠 민족주의였다.²⁴⁾ 하지만 이런 관념은 2000년대를 지나며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멀게는 1988년의 올림픽 가깝게는 특히 2002년 월드컵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록 홈그라운드 이점을 등에 업기는 했지만 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하고 월드컵에서도 세계 4강에 진출함으로써 오랫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짓눌러왔던 약소국 의식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성과의 결과 각종 국제대회는 여전히 개최되고 그

24) 여기서 저항으로서의 스포츠란 스포츠를 저항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상정했던 것이 그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준영(2011)을 참조하라. 한편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현상으로서의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근대 민족 개념의 발전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2004)과 에릭 홉스봄 외(2004) 등을 참조하라. 또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 민족주의의 성립과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천정환(2010)과 정희준 등을 참조하라. 한편 2000년대 이후 스포츠 민족주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준영(2009; 2011)을 참조하라.

과정에서 스포츠를 통한 국가간 경쟁도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그 경쟁에서의 승리를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지표로 생각하고 승부에 집착하는 태도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스포츠 민족주의가 약화되면서 국가와 스포츠를 연결시키는 관념 또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시기의 정권의 성격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의 독재정권처럼 국가와 민족, 정권을 일체화하지 않고 정권을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에 다소 거리를 두면서 스포츠가 국가주의와 연관되는 고리에 다소의 균열의 여지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는 스포츠의 폭발 과정에서 스포츠와 개인의 만족을 연결시켰던 우리 사회구성원들은 정권 스스로 제공해 준 이런 균열을 이용하여 국가주의 스포츠의 틀을 극복해 가기 시작했다. 스포츠 활동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설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선수와 팬을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그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국제대회에서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하는 스포츠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개인화된 것은 앞 장에서 논의한 여러 요인들과 함께 우리 스포츠의 국제적 성과가 축적된 것이 결합되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스포츠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스포츠의

개인화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현상으로 201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가 인권의 한 항목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스포츠를 인권의 한 항목으로 설정하게 된 데에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면서 그 욕구를 뒷받침할 제반 여건에 대한 요구도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권의 한 차원으로 선언한 [스포츠 인권 헌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임을 천명한 것으로 스포츠의 개인화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권리로 보는 시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1970년대 중반 이후 생활체육 개념이 자리잡히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고가 널리 확산되었으며 그 기반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역시 명시적으로 스포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중요한 권리의 요소로 선언함으로써 스포츠 향유권에 대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다. 이외 법 앞의 평등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12조(“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한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역시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스포츠에 대한 권리와 연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우리 헌법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보장해 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²⁵⁾

하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가의 공식 기구에서 스포츠 향유권을 인권의 한 차원으로 천명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규정이 스포츠 향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명시적으로 스포츠 향유권을 인권의 한 부분으로 천명함으로써 인권의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시민 누구에게라도 스포츠 향유권을 충분히 누릴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근거가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이 스포츠 향유권에 대해 다소 추상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 인권 헌장]은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에 비해 훨씬 더 명시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스포츠 향유권은 행복추구권 이전에 동물

25) 우리 헌법에서 스포츠를 인권의 한 항목으로 보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조항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문경란(2021)을 참조하라.

로서의 인간이 지닌 기본 속성과 연관되어 있어 생존권의 차원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발달된 현대사회가 동물로서의 인간이 생존해 가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움직임의 여지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라도 그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은 그 출발점이 전문 운동 선수, 그 중에서도 특히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것이고 현장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 것일 뿐 법률과 같이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파급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체육계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이 현장이 지닌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현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돌출적 결정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 변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변화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과 일반 학생의 운동권을 동시에 규정한 2012년의 학교체육진흥법이라든지, 우리 스포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을 권고한 2019년의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활동 등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서 관건은 과거 전문체육의 틀을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일부 체육인이나 정책담당자의 반발을 어떻게 넘어서는가이겠지만 스포츠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속도와 무관하게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결국 스포츠의 개인화는 스포츠 활동을 개인의 만족과 연관시키는 관점이 확고하게 정립되도록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스포츠의 개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가주의 스포츠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집단주의적 스포츠가 집단을 위해 개인을 억압했던 폐해 역시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이 있다. 국가주의 스포츠가 지닌 억압적 성격이 쇠퇴한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스포츠가 애초 성립부터 집단주의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스포츠와 유사한 활동이 처음 시작되었던 원시 시대처럼 물리적 생존을 위해 스포츠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나친 개인화가 고립으로 연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고립된 개인들 사이의 연결점을 확보할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역할은 오히려 새롭게 주목되어야 할 요소가 아닐까? 그렇다면 관건은 스포츠 개인화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그것이 국가주의 또는 부정적 형태의 새로운 집단주의로 갈 길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될 것이다.

- 논문 투 고 일: 2022.01.21.
- 심사 완료 일: 2022.02.06.
- 게재 확정 일: 2022.02.09.

참고문헌

- 김종엽 (1998). 쿠베르탱 남작의 현대 올림픽 창설, 이동연 외,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삼인.
- 김창남 (2021). 한국 대중문화사, 한울.
- 문경란 (2021). 지금, 왜, 스포츠 인권인가?, 스포츠인권연구소, 제1회 스포츠인권포럼, 미발표 논문.
- 박해남 (2018).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 한국의 사회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하래 (2006). 한국체육사연구, 국학자료원.
- 정준영 (2002). 축구와 노동계급, 윤상철, 안민석 편, 월드컵, 신화와 현실, 한울 아카데미, 2002.
- 정준영 (2003).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책세상.
- 정준영 (2009).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스포츠, 사회와 역사, No. 84.
- 정준영 (2020). 세대와 문화, 유범상 외, 세대와 소통, 지식의 날개.
- 정준영 (2011).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스포츠 열풍과 한국사회, 정신문화연구, 제 34권 제3호.
- 정희준 (2009). 스포츠 코리아 판타지, 개마고원.
- 주은우 (1994). 90년대 한국의 신세대와 소비문화, 경제와 사회 No. 21.
- 주은우 (2010).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No. 88.
- 천정환 (2010).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스포츠 민족주의와 식민지 근대, 푸른역사.

- 베네딕트 앤더슨 (2004). 상상의 공동체, 나남.
- 앨리스 캐시모어 (2001). 스포츠, 그 열광의 사회학, 한울.
- 에릭 홉스봄, 사라 모건 (2004).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 크리스토퍼 라쉬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문학과지성사.
- Guttmann (1978). From Ritual to Record: The Nature of Modern Spor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Overman, S.J. (2000). The Influence of the Protestant Ethic on Sport and Recreation, Aldershot: Avebury.



Abstract

The weakening of sports nationalism in 2000s' Korea

Junyoung Chung

Dept. of Culture & Liberal Arts

KNOU

From the start of the modern sports in Korea, Korean people thought the sports as a means of resistance and developed the sports nationalism. It strengthened in the dictatorial regimes and consolidated as a kind of statism. Korean dictatorial regimes used the sports to secure their weak legitimacy and in that process developed the elite sports in Korea.

But from the 1990s the sports nationalism in Korea started to weaken. There were many factors to influence the trend and among them the proliferation of the participatory sports within the Korean people was most important.

The spread of the participatory sports in Korea started mainly to strengthen the personal health. But from the 2000s many Korean people was immersed in sports to magnify their personal satisfactions. This change can be named as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sports and it systematically weekend the sports nationalism in Korea.

With the spread of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sports, Korean people could overcome the sports nationalism. But it could undermine the collectivism of the sports which had been the origin of the sports and still has many positive potentials. So we need the appropriate solutions to maximize the positive potentials of the sports collectivism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potentials of the sports nationalism.

| Key Words | sports statism, sports nationalism, individualization of the sports, participatory sports

